독일어의 어순에 관한 몇 가지 관찰

- 부사와 목적어의 어순 및 동사위치에 따른 어순변화 -

송경안 · 조동섭(전남대)

1. 들어가기

송경안(1981)은 부사들 사이의 어순과 관련하여 독일어, 영어, 불어, 한국어의 중립어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그의 관찰은 박찬기(1959), Fourquet(1959), Admoni(1962) Flämig(1964), Kirkwood(1969)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영어는 정동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할수록 동사에 가까이 위치하고 독일어는 반대로 동사와 가까운 요소일수록 문장 끝으로 간다(Heidolf, 1964: 101f; Bierwisch, 1966: 35; Engel, 1971, 1973; Weber, 1977: 89 참조). 이와 관련해서 특히 박찬기(1959) 송경안(1981) Rhie(1987), Park(1981) Vennemann(1982) 등은 한국어 어순의 원칙이 독일어와 비슷하고 영어와는 반대임을 관찰했다.

이상의 논의들은 대개 한 문장 안에 나타나는 부사들 사이의 어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송경안(1993)은 독일어, 영어, 한국어의 부사와 목적어 사이의 어순을 관찰한 결과 위와 같은 일반화가 여기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송경안(1993)은 특히 독일어의 부사와 목적어 사이의 어순이 부사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얼핏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동적이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송경안(1993)은 이어 독일어의 자유어순과 관련하여 어순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특별히 본동사의 위치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독일어의 경우 본동사의 위치에 따라 기본 어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글은 필자 등이 독일현지를 방문한 기회에 독일의 대학생들에게 독

일어의 목적어와 부사들 사이의 어순 및 본동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어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송경안(1993)에 대해 일종의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 자료조사를 위해 우리는 독일의 Bochum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응답을 부탁했다.[1] 20명이라는 조사대상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집단의 크기인지는 논외로 하겠다.
2) 설문조사는 모두 6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설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 설문의 응답자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어순이 다른 두 가지 문장을 나란히 써 놓고 이 가운데 중립적인 문장(neutraler/unbetonter Satz)에 표시하도록 한 경우가 있고 더 좋은 문장(klingt besser)에 표시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4)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한 장씩 주어 설문에 응하게 했다.
5) 설문에 쓰인 문장에는 각각 한 종류의 부사와 목적어가 사용되었으며 문장에 따라 다른 종류의 부사를 사용하였다.
6) 본동사의 위치변화에 따른 다른 어순의 변화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문장으로[2] 본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와 후치하는 경우의 어순을 조사하였다.
7) 본동사가 후치하는 경우는 부정사 구문, 분사구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조동사 구문과 부문장에

---

1) 이와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각 설문지에 담고 있는 예문의 종류나 조사대상 문장들의 배열 순서도 의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회의 설문지를 부록에 싣는다.
2) 같은 종류의 문장이란 동사와 목적어 및 부사가 동일한 문장을 일컫는다.

한정시켰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송경안(1993: 271)은 독일어의 부사와 목적어 사이의 중립적인 어순에 대해 (1)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독일어: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순을 달리 쓸 수 있다.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목적어 + 부사"의 어순도 강하게 나타나며 부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립 어순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a. 시간 및 기간부사, 양태부사, 빈도부사는 부사 + 목적어의 순서가 중립적이다.
b. 방향부사는 목적어 + 부사의 순서가 일반적이다.
c. 도구부사는 목적어 + 부사의 순서가 우세하다.
d. 장소부사는 동사에 따라 중립어순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목적어 + 부사의 순서가 강하게 나타난다. "setzen, hängen, stellen" 등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말은 목적어가 앞에 온다. "haben, es gibt" 등은 목적어 + 부사 어순이 좋다. "treffen, finden" 등은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더 좋다.
e. 출처부사는 동사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목적어 + 부사의 순서가 더 우세하다. "abholen"은 목적어를 먼저 써야 하고 "holen"은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일반적이다.

송경안(1993)의 위와 같은 결론은 매우 불분명하고 어정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독일어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위의 사항을 점검해 보고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예문 (2-3)에서 우리는 양태부사와 방향부사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부사만 하더라도 벌써 다른 의견이 나타난다(예문 (4) 참조)[3].

(2) a. Ich trinke (sehr) gern Kaffee. (20)
b. Ich trinke Kaffee gern. (0)

(3) a. Wir werden nach Korea Fachleute schicken. (0)
b. Wir werden Fachleute nach Korea schicken. (20)

(4) a. Ich treffe einen Freund am Montag. (3n)
b. Ich treffe am Montag einen Freund. (17n)

장소부사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5)에서 중립적인 문장을 묻는 (5a-d)의 경우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5e-f)와 같이 어느 것이 좋은 문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5a-b)와 (5c-d)의 통계적인 차이를 의미있는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본동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e-f)의 결과도 본동사의 위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5a-b)와 비교할 때 (5g-h)는 본동사의 위치변화에 따른 어순의 변화 가능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5) a. Er hat in Bonn ein Geschäft. (2n)

---

3)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자의 수이며 숫자 뒤의 "n"은 "어느 것이 중립적인 문장이냐?"(Welcher von den beiden Sätzen ist der neutrale(unbetonte) im Deutschen?)"는 질문에 응답한 것임을 나타낸다. 숫자만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이 더 좋은 문장이냐?(Welcher von den beiden Sätzen klingt dir besser?)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b. Er hat ein Geschäft in Bonn. (17n)
c. Er soll in Bonn ein Geschäft haben. (6n)
d. Er soll ein Geschäft in Bonn haben. (14n)
e. Er soll in Bonn ein Geschäft haben. (10)
f. Er soll ein Geschäft in Bonn haben. (10)
g. Marie weiß, dass er in Bonn ein Geschäft hat. (13)
h. Marie weiß, dass er ein Geschäft in Bonn hat. (7)

(6)은 (5)와 같은 장소부사의 예로서 (6a-d)의 경우 (5a-b, 5e-f)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서 이 장소부사의 경우도 어느 한 쪽 어순에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6a-d)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6e-h)에서는 통계가 (6a-b)와는 반대의 양상을 띄고 있어서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5c-d)와 (6g-h)는 같은 조동사 문장으로서 둘 다 "중립적인 문장"을 묻는 질문인데도 통계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로선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같은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6) a. Es gibt in London drei Universitäten. (5)
b. Es gibt drei Universitäten in London. (15)
c. Es soll in Seoul drei Universitäten geben. (10)
d. Es soll drei Universitäten in Seoul geben. (10)
e. Es hat in London drei Universitäten gegeben. (12n)
f. Es hat drei Universitäten in London gegeben. (7n)
g. Es soll in London drei Universitäten geben. (13n)
h. Es soll drei Universitäten in London geben. (7n)

(7)도 역시 장소부사의 예로서 현재형 기본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7a-b)는 (5-6)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 부사" 어순이 우세하다. 부문장으로 쓰인 (7g-h)의 경우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7c-f)의 경우 이와 비슷한 형식의 설문에 통계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 가지 설명방법을 찾자면 (7a-d)가 같은 설문지에 들어있는 문장이고 (17e-f)는 다른 설문지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7) a. Er trifft in der Stadt einen Freund. (5n)
b. Er trifft einen Freund in der Stadt. (13n)
c. Er hat in der Stadt einen Freund getroffen. (5n)
d. Er hat einen Freund in der Stadt getroffen. (14n)
e. Ich habe in der Stadt einen Freund getroffen. (11n)
f. Ich habe einen Freund in der Stadt getroffen. (9n)
g. Marie glaubt, dass er in der Stadt einen Freund trifft.(15)
h. Marie glaubt, dass er einen Freund in der Stadt trifft. (5)

(8)도 장소부사 문장으로서 위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즉 현재형 기본문장 (8a-b)에서는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하다가 본동사가 후치하는 완료구문 (8c-d)나 조동사 구문 (8e-f)에서는 양상이 약간 달라지며 부문장 (8g-h)에 이르러서는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우위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8) a. Er sucht in Frankfurt eine Stelle. (5n)
b. Er sucht eine Stelle in Frankfurt. (14n)
c. Er hat in Frankfurt eine Stelle gefunden. (10)
d. Er hat eine Stelle in Frankfurt gefunden. (10)
e. Er möchte in Frankfurt eine Stelle finden. (10)
f. Er möchte eine Stelle in Frankfurt finden. (10)
g. Ich weiß, dass er in Frankfurt eine Stelle sucht. (13)
h. Ich weiß, dass er eine Stelle in Frankfurt sucht. (7)

지금까지 (5-8)의 장소부사 문장의 경우 현재형 기본문장에서는 적어도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에서는 조사결과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즉 (9)의 경우 "중립적인 문장"과 "더 좋은 문장"을 묻는 질문에서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a-b)와 (9c-d)는 각각 다른 설문지에 들어 있는 문장인데 조사결과는 우연히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9) a. Peter liest auf einer Bank ein Buch. (11n)
b. Peter liest ein Buch auf einer Bank. (9n)
c. Peter liest auf einer Bank ein Buch. (11)
d. Peter liest ein Buch auf einer Bank. (9)

(10)은 역시 장소부사 문장인데 이 가운데 (10a-d)는 (9)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비슷한 문장인데도 (10e-f)는 (10a-d)에서와는 반대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차이가 있다면 (10e-f) 문장에서는 "Brot"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고 "중립적인 문장"을 묻는 질문이었다는 점이다.[4]

(10) a. Sie schneidet in der Küche Brot. (11)
b. Sie schneidet Brot in der Küche. (9)
c. Sie hat in der Küche Brot geschnitten. (13)
d. Sie hat Brot in der Küche geschnitten. (7)
e. Sie hat in der Küche das Brot geschnitten. (7n)
f. Sie hat das Brot in der Küche geschnitten. (13n)

4) 정관사 유무는 필자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11)은 장소부사 문장에서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하다는 위 (5-8)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5, 7, 8)의 예에서와는 달리 부문장에서도 이 어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1) a. Er kann in einer Schublade einen Brief haben. (5)
b. Er kann einen Brief in einer Schublade haben. (15)
c. Sie meint, dass er in der Schublade einen Brief hat. (8)
d. Sie meint, dass er einen Brief in der Schublade hat. (12)

같은 장소부사 문장이면서도 (5, 7, 8)과 (11)의 문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부사와 동사 사이의 긴밀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5]. 즉 같은 "haben" 동사 문장이지만 (12a)보다 (12b)가 약간은 더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12b)에는 장소부사가 하나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 (12b)의 경우 장소부사가 상당히 필수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도구부사의 경우처럼 부사는 목적어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a. Er hat ein Geschäft.
b. Er hat einen Brief.

(5-8)과 (9-10)에서 보는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의 차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하여 Wandruszka(1981: 84f)는 독일어에서 목적어 뒤에 오는 부사요소를 보충어(Ergänzung)로 보고 목적어 앞에 오는 부사요소를 상황어(Angabe)로 보려고 한다(예문 (13) 참조). 보충어냐 상황어냐의 구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보면 이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지만 (12)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5) 장소부사라도 예를들면 "wohnen"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보통 보충어로 인식된다(Engel & Schumacher, 1978: 300).

도움은 되리라고 본다.

(13) a. Gerhard las auf einer Bank ein Buch. (Angabe)
b. Peter bohrte mit einem Messer ein Loch. (Angabe)
c. Peter legte ein Buch auf einen Stuhl. (Ergänzung)
d. Peter zog ein Buch aus einer Schublade. (Ergänzung)

도구부사의 경우 동사와의 밀착도가 강해서 대개 목적에 뒤에 오는데 (14-15 참조), 어떻든 도구부사의 경우도 장소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 어순이 절대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4a-b)와 (14c-d)의 작은 차이는 본동사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 듯도 하지만 (14e-f)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소부사의 경우 주문장에서와는 달리 부문장에서의 어순이 "부사 + 목적어"의 어순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는데 반해 도구부사의 경우는 부문장에서도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하다. (14)와 (15)는 문장유형별로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5e-f)만은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위 (10)에서처럼 "Brot" 앞에 정관사 유무에 따라 오는 차이인 듯하다.

(14) a. Er schließt mit dem Schlüssel die Tür ab. (5)
b. Er schließt die Tür mit dem Schlüssel ab. (15)
c. Er hat mit dem Schlüssel die Tür abgeschlossen. (8)
d. Er hat die Tür mit dem Schlüssel abgeschlossen. (12)
e. Ich sehe, dass er mit dem Schlüssel die Tür abschließt. (6)
f. Ich sehe, dass er die Tür mit dem Schlüssel abschließt. (14)

(15) a. Sie schneidet mit dem Messer das Brot. (4)
b. Sie schneidet das Brot mit dem Messer. (16)
c. Sie wird mit dem Messer das Brot schneiden. (3)
d. Sie wird das Brot mit dem Messer schneiden. (17)

e. Sie hat mit dem Messer Brot geschnitten. (9)
f. Sie hat Brot mit dem Messer geschnitten. (11)
g. Ich sehe, dass sie mit dem Messer das Brot schneidet. (6)
h. Ich sehe, dass sie das Brot mit dem Messer schneidet. (14)

같은 도구부사이지만 (16)은 위 (14-15)에서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a-f)를 보면 현재형 기본문장에서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본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완료구문과 부문장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도 역시 위 (12)에서 말한 부사와 동사의 밀착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같은 도구부사라도 보충어에 가까운 부사가 있고 상황어에 가까운 부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점에서 (14-15)와 (16)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Wandruszka(1981: 84f)가 제시한 위 (13b)에서는 도구부사가 상황어로 취급되고 있다.

(16) a. Er schreibt mit dem Füller einen Brief. (3n)
b. Er schreibt einen Brief mit dem Füller. (15n)
c. Er hat mit dem Füller einen Brief geschrieben. (10)
d. Er hat einen Brief mit dem Füller geschrieben. (10)
e. Ich sehe, dass er mit dem Füller einen Brief schreibt.(11)
f. Ich sehe, dass er einen Brief mit dem Füller schreibt.(9)
g. Er muss mit einem Füller einen Brief schreiben. (7)
h. Er muss einen Brief mit einem Füller schreiben. (13)
i. Ich weiß, dass er mit einem Füller einen Brief schreibt.(4n)
j. Ich weiß, dass er einen Brief mit einem Füller schreibt.(16n)

한편 (16g-j)에서는 (16a-f)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전자의 경우 "Füller" 앞에 부정관사가 왔고 후자의 경우 정관사가 와 있는데서[6] 오는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16i-j)는 또한 "중립적인 문장"을 묻

고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문장"을 묻고 있는 (16e-f)와 차이가 있다.

위에서 우리는 같은 종류의 부사라도 보충어에 가까운 부사가 있고 상황어에 가까운 부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출처 및 출발점을 나타내는 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17)의 "abholen"의 경우 출처부사가 필수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른 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사가 목적어 다음에 온다. 그러나 "bekommen" 동사의 경우 동사와 출처부사의 밀착도가 "abholen" 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18)에 보는 바와 같이 부사와 목적어 사이의 어순이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7) a. Ich hole von der Schule mein Kind ab. (0)
b. Ich hole mein Kind von der Schule ab. (20)
c. Ich muss vom Bahnhof meinen Freund abholen. (0)
d. Ich muss meinen Freund vom Bahnhof abholen. (20)

(18) a. Ich habe von einem Freund ein Paket bekommen. (7n)
b. Ich habe ein Paket von einem Freund bekommen. (13n)
c. Zu Weihnachten bekomme ich von einem Freund ein Paket. (9)
d. Zu Weihnachten bekomme ich ein Paket von einem Freund. (10)

(19)는 "holen" 동사의 예인데 이 경우도 동사와 출처부사와의 밀착도가 "abholen" 만큼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본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19a-b)와 본동사 후치구문 (19c-h)에서의 응답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사와 부사 사이에 밀착도가 느슨한 경우 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변화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9) a. Er holt aus seinem Zimmer zwei Stühle. (6)

---

6) 정관사와 부정관사 차이도 역시 필자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b. Er holt zwei Stühle aus seinem Zimmer. (14)
c. Peter wird aus seinem Zimmer zwei Stühle holen.(13)
d. Peter wird zwei Stühle aus seinem Zimmer holen.(7)
e. Peter wird aus seinem Zimmer zwei Bücher holen.(10n)
f. Peter wird zwei Bücher aus seinem Zimmer holen.(10n)
g. Er hat aus seinem Zimmer zwei Bücher geholt.(10n)
h. Er hat zwei Bücher aus seinem Zimmer geholt.(9n)

(20)은 빈도부사 "regelmäßig"의 예이다. "중립적인 문장"을 묻는 (20a-b)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라고 응답한 반면 "더 좋은 문장"을 묻는 (20c-d)에서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같은 "중립적인 문장"을 묻는 문장인데도 본동사가 후치하고 있는 (20e-f)에서는 본동사 정치구문 (20a-b)에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20g-h)는 부문장의 어순으로 정치문인 (20c-d)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역시 정치문인 (20a-b)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a. Ich besuche regelmäßig meinen Doktorvater. (19n)
b. Ich besuche meinen Doktorvater regelmäßig. (1n)
c. Ich besuche regelmäßig meinen Doktorvater. (9)
d. Ich besuche meinen Doktorvater regelmäßig. (11)
e. Er hat regelmäßig seinen Doktorvater besucht.(3n)
f. Er hat seinen Doktorvater regelmäßig besucht.(15n)
g. Ich weiß, dass er regelmäßig seinen Doktorvater besucht.(7)
h. Ich weiß, dass er seinen Doktorvater regelmäßig besucht.(13)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이 연구의 조사결과가 송경안(1993)의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위 (1)에서 보는 것처럼 송경안(1993)은 무엇보다도 독일어의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목적어 + 부사"의 어순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자료로 미루어 보건데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을 일반적인 어순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장 자주 쓰이는 시간부사과 장소부사만 하더라도 기본어순이 일치하지 않고, 시간부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목적어 앞에 오는 것 같은데 장소부사의 경우 적어도 현재형 기본문장에서는 목적어 뒤에 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 같다. (1a)를 제외한 (1b-e)에서 모두 "목적어 + 부사"의 어순이 우세하다면 이것을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종적인 결론은 다른 부사의 경우를 더 조사해 본 다음에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독일어는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에서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말과 큰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부사들 사이의 어순만을 관찰했을 때는 상당한 체계적인 일치를 보이던 한국어와 독일어의 어순이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말의 경우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중립어순이 거의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7] 독일어의 경우 위의 자료에서 관찰하듯이 어느 한 쪽도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독일인 자신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로만스계 언어 및 이들과 어순이 일치하고 있는 영어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동사의 어순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독일어 자체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위의 자료에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부사라도, 예를 들면 도구부사의 경우, 동사의 성격에 따라 중립적인 어순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보충어와 상황어의 경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위에서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정도의 문제 혹은 단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7) 우리말의 경우 동사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방향 및 출처부사 그리고 양태부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목적어 앞에 온다.

한편 송경안(1993)에서 예견했던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변화의 가능성은 위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본동사의 위치에 따라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송경안(1993) 이전에 Dean(1976)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8] Dean(1976)은 "Die Zeit" 등의 텍스트를 조사한 결과 본동사의 위치에 따라 부사들의 어순이 달라지는 것은 관찰하였다. Dean은 실제로 쓰인 독일어 실용텍스트를 중심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순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역동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경우 '중립적인 어순' 혹은 '더 낳은 어순'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문장 쌍들에 대해 피조사자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서 일종의 정적인 조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 Dean은 부사들 사이의 어순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목적어와 부사들 사이의 어순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조사와 차이가 있다. 어떻든 두 조사에서 모두 우리는 독일어의 본동사의 위치에 따라 어순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4. 마무리

송경안(1993)은 독일어의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중립적인 어순에 대해 논의하고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독일어 어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던 바 이 글은 독일 현지 대학생들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독일어의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중립적인 어순은 송경안(1993)의 논의대로 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독일어에서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그 반대의 어순보다 우세하다는 송경안(1993)의 주장은 수정을 가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는 곧 "부사 + 목적어"의 어순이 우세한 한국어와 대조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8) Dean(1976)의 조사결과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용경(1998)의 자료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요한 사실은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사류에서 목적어와의 상대적인 어순이 어느 쪽도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점은 위에 언급한 한·독간 목적어와 부사 기본어순의 대조와 함께 한국의 독일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동사의 위치에 따른 어순 변화의 가능성은 이 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다. 같은 동사후치의 경우라도 조동사 구문이나 완료 구문에서보다 부분장 구조에서 더 분명한 어순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20명이라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쓰기에는 양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독일어의 어순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더라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참 고 문 헌

박찬기(1959): 독일어의 어순. 독일문학 1. 1-20.

송경안(1981): 독일어 어순의 일반화를 위하여. 용봉논총 11.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81-90.

송경안(1993): 독일어 영어 한국어 어순의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1집. 258-275.

이용경(1998): 독일어의 어순에 대한 통계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Admoni, W.(1962): Über die Wortstellung im Deutschen. In Moser, H.(hrsg.): Ringen um eine neue deutsche Grammatik.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376-380.

Bierwisch, M.(1966): Grammatik des deutschen Verbs. Studia Grammatica 2. Berlin: Akademie Verlag.

Dean, O. C., Jr.(1976): Verb Position and the Order of Adverbials in German. Papiere zur Linguistik 11. 20-33.

Engel, U.(1971): Adjungierte Adverbialia. IdS Forschungsberichte 1. 85-103.

Engel, U. & Schumacher, H.(1978):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Tübingen: Gunter Narr.

Flämig, W.(1964): Grundformen der Gliedfolge im deutschen Satz und ihre sprachlichen Funktionen. I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86. 309-349.

Fourquet, J.(1959): Strukturelle Syntax und inhaltbezogene Grammatik. In Gipper, H.(hrsg.): Sprache - Schlüssel zur Welt. Düsseldorf: Schwann. 360-375.

Heidolf, K.(1964): Einfacher Satz und Kernsatz im Deutschen. Acta Linguistica 14. 97-109.

Kirkwood, H.(1969): Aspects of Word Order and its Communicative Function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Linguistics 5. 85-107.

Park, J.-G.(1981): Probleme der kontrastiv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Grammatik. Frankfurt a.M.: Peter Lang.

Rhie, B.-T.(1987): Zu einer Typologie der Wortstellung. Language Research 23:3. 341-349.

Vennemann, Th.(1982): Deutsche, englische und koreanische Wortstellungssyntax aus typologischer Sicht.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17. 1-29.

Wandruszka, U.(1981): Zur Serialisierung des Adverbials im italienischen und Deutschen. In Schwarze, Chr.(hrsg.): Italienische Sprachwissenschaft. Tübingen: Guter Narr. 83-98.

Weber, H.(1977): Kleine generative Syntax des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Zusammenfassung

Eine statistische Untersuchung zur Wortstellung
im Deutschen

Song, Kyung-An & Cho, Tong Sop(Chonnam Uni.)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e durch Umfragen an die deutschen Studierenden eine statistische Untersuchung über die Grundwortstellung des Objekts und der Adverbien des Deutschen und über ihre Veränderungsmöglichkeit in Bezug auf die Verbposition. Dabei wurde gezeigt, dass die Grundwortstellung je nach der Art der Adverbien variiert. Die temporalen Adverbien gehen z.B. dem Objekt vor, während die lokalen Adverbien generell hinter dem Objekt stehen.

Im Gegensatz zum Ergebnis von Song (1993) wurde aber festgestellt, dass im Deutschen die Wortfolge "Objekt + Adverb" eher die vorherrschendere ist, als die von "Adverb + Objekt". Hier sollte man aber klarmachen, dass man dabei fast keine absolut bevorzugte Grundwortstellung festlegen konnte, sondern dass sie eher je nach dem Sprecher sehr variiert.

Im Vergleich mit dem Koreanischen, wo die Grundwortstellung zwischen dem Objekt und Adverbien nicht schwankend ist, ist es dem Deutschen charakteristisch, dass diese Grundwortstellung je nach der Art der Adverbien variiert und auch je nach dem Sprecher schwankend ist. Die Wortstellung des Deutschen kontrastiert sich auch gegen die des Englischen, in dem das Objekt konsistent den Adverbien vorgeht. Diese Ergebnisse wären für DaF in Korea sinnvoll, wo das Englische als die erste und das Deutsche als die zweite Fremdsprache gelehrt werden und die Lernenden im Deutschunterricht nicht nur ihre Muttersprache, sondern auch das Englische als Bezugspunkt nehmen.

Durch die Umfragen hat es sich nun ergeben, dass die Grundwortstellung des Deutschen auch mit der Verbposition zusammenhängt. D.h., im Deutschen, wo das Verb an der zweiten Stelle oder am Ende des Satzes vorkommen kann, kann die Wortstellung von der Verbposition beeinflusst werden. Unter den verbfinalen Strukturen zeigt sich in den Nebensätzen die Möglichkeit der Wortfolgeveränderung deutlicher als in den Modalverbsätzen oder in den perfektiven Sätzen.

부 록: 설문지 2종 (괄호 속의 숫자는 응답자 수임.)

☐ 설문지 1 ☐

Ist Deutsch deine Muttersprache? Dann kannst du mir etwas helfen. Welcher von den beiden Sätzen ist der neutrale(unbetonte) im Deutschen? Bitte, entscheide spontan nach deinem eigenen Gefühl und ankreuzen!

- Er hat ein Geschäft in Bonn. (17)
- Er hat in Bonn ein Geschäft. (2)

- Er hat aus seinem Zimmer zwei Bücher geholt. (10)
- Er hat zwei Bücher aus seinem Zimmer geholt. (9)

- Er schreibt einen Brief mit dem Füller. (15)
- Er schreibt mit dem Füller einen Brief. (3)

- Er trifft einen Freund in der Stadt. (13)
- Er trifft in der Stadt einen Freund. (5)

- Er sucht eine Stelle in Frankfurt. (14)
- Er sucht in Frankfurt eine Stelle. (5)

- Es hat in London drei Universitäten gegeben. (12)
- Es hat drei Universitäten in London gegeben. (7)

- Er hat seinen Doktorvater regelmäßig besucht. (15)
- Er hat regelmäßig seinen Doktorvater besucht. (3)

- Er hat einen Freund in der Stadt getroffen. (14)
- Er hat in der Stadt einen Freund getroffen. (5)

□ 설문지 2 □

Ist Deutsch deine Muttersprache? Dann kannst du mir etwas helfen? Welcher von den beiden Sätzen klingt dir besser? Bitte, ankreuzen!

- Es gibt drei Universitäten in London. (15)
- Es gibt in London drei Universitäten. (5)

- Er kann einen Brief in einer Schublade haben. (15)
- Er kann in einer Schublade einen Brief haben. (5)

- Er soll ein Geschäft in Bonn haben. (10)
- Er soll in Bonn ein Geschäft haben. (10)

- Er möchte in Frankfurt eine Stelle finden. (10)
- Er möchte eine Stelle in Frankfurt finden. (10)

- Sie wird das Brot mit dem Messer schneiden. (17)
- Sie wird mit dem Messer das Brot schneiden. (3)

- Er hat die Tür mit dem Schlüssel abgeschlossen. (12)
- Er hat mit dem Schlüssel die Tür abgeschlossen. (8)

- Er muss einen Brief mit einem Füller schreiben. (13)
- Er muss mit einem Füller einen Brief schreiben. (7)

- Sie hat Brot in der Küche geschnitten. (7)
- Sie hat in der Küche Brot geschnitten. (13)

- Peter wird aus seinem Zimmer zwei Stühle holen. (13)
- Peter wird zwei Stühle aus seinem Zimmer holen. (7)

- Wir werden Fachleute nach Korea schicken. (20)
- Wir werden nach Korea Fachleute schicken. (0)